

칼럼

장기채 주필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겨울의 끝자락이다. 봄의 길목이기도 하다. 봄꽃들의 화려한 외출, 이제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강원도 깊은 산골은 아직도 온통 하얀 세상이다.

겨우내 거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동백꽃봉오리들은 어느새 낙엽처럼 갈려 버렸고, 최남단 제주도 성산에는 봄기운 한껏 맞은 유채가 꽃을 피울 것이다.

오는 4일은 입춘(立春)이다. 곧 남도 땅은 노란 물결로 뒤덮인다. 겨울 속에는 봄이 숨어 있는 것일까. 아무리 극한 겨울 속에도 봄은 내일을 숨 쉬고 있는 것일까.

이제 함평 자연생태공원에는 성급한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트리며, 순천 매곡동에는 흥매화가 꽃을 피울 것이다.

멀리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수목원에는 '납땀'이 활짝 피었다. 음력 12월을 뜻하는 한자 납(臘)과 매화를 뜻하는 매(梅)가 붙여져 생긴 이름이다. 인뿔 보기에 매화와 비슷한 예쁜 꽃이다. 한 겨울 추위를 견디고 나온 귀한 꽃이라는 뜻에서 '한객(寒客)'이라는 애칭도 붙여진 그런 꽃이다.

그러나 버거운 살림살이에 먹고 살기조차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입춘대길(立春大吉)' 일수가 없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來春·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이다.

서민들은 언제나 이 어려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봄이 오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얼음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니 마음은 정녕 봄이 오고 있는 느낌이다.

저녁 먹을 시간이면 북두칠성은 저 먼 지평선에 자루가 꽃힌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겨우내 사랑을 듬뿍 받아들인 북두칠성을 밤하늘에서 찾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예나 지금이나 봄은 늘 상서로운 기운과 아우러져 부춘 희망으로 차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동안을 돌아보면 혹독한 겨울의 깊은 곳을 건너왔던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분명 봄으로 가는 첫 이정표다. 또 우수가 지나고 동풍이 불어 언 땅을 녹이면, 잠자던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냇가의 얼음 밑에서도 물고기가 돌아다닐 것이다. 이 좋은 시절에 국민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더 이 어려운 골짜기를 헤매야 할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래도 어찌 하겠는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길운을 바라는 마음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천운발원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소망을 기원하는 문구를 써 붙이기도 한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돈 들여갈 곳도 많은 2월인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없었으면 한다.

지금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이는 치솟는 물가, 밀리는 임금 체불, 늘어만 가는 세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노인복지정책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젠 명절 풍속도 바뀌어져

야 한다. 여유를 찾아야 한다. 다가오는 설을 시작으로 하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자녀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부모님도 한번 더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신발도 사 드리는 등 효도를 하여야 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당장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에게 정성을 베푸는 게 참사랑 아니겠는가.

설날은 흔히 구정이라고도 한다. 한 해 시작한 음력 정월 초하루를 일컫는 말이다.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인데,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설'은 '새해의 첫날, 새해의 처음'이라는 의미 외에 나이를 세는 단위로도 쓰였다. 이 시기에 '설'과 '살'은 모음 교체에 따른 어휘 분화를 보이는 단어였다.

나이를 세는 단위로서 '살'이 쓰인 예는 19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에는 새해가 되면 서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비는 덕담을 주고 받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다. 그리고 흐릿한 풍속이 아닐 수 없다. 진실에서 우리나라는 덕담의 자세로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社說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올려야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서훈은 건국훈장 5단계 중 3등급인 '독립장'에 그쳐 그동안 저평가 논란이 일었다.

관가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간 주례회동에서 3·1운동 당시(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됐던) 사회적 분위기와 고령화 유 열사의 공적은 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3·1절을 맞아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면 국민들께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훈을 담당하는 보호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문양 여운형 선생의 선례를 참조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 여운형 선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2등급)에 추서된 이후 2008년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다시 한 단계 높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

지금 일본이 재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열사의 정신은 국민들에게 더 뜻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과는 별개로 해방 후 어린이, 여성, 나아가 전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심어 줬고 민족정기 회복 교육에 관한 공헌을 평가한다면 서훈의 격상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역사인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후손들에게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資父事君 資財事君

資父事君

▷ 뜻: 아버지를 자료(資料)로 하여 임금을 섬길지니, 아버지 섬기는 효도(孝道)로 임금을 섬겨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전통시장 안전부주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와 웃음이 넘치는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이라는 전제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

최근들어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화재 목포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짧은 순간 시장 전체에 많은 피해를 입

혀 상인들과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재래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협소해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 확대에 의해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소규모 점포와 노점상들이 밀집된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취약해 방화구획과 소방시설 적용이 불가능하며, 전기·가스시설 등의 무분별한 사용과 차광막, 불법주차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다.

아울러, 무질서하게 연결해 사용하는 전기배선 즉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상인이나 손님들이 버린 담뱃불,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난로 등이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점검과 함께 비상소화장치 등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기시설은 합법주차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식 석유 난

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시 소방차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입로에는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화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며 소방관서 단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 상인들의 자율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재래시장 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설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류창호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happiness.